

광주국제공연예술축제 두 달 앞인데...

예산 확보 못해 '축소' 불가피

시·국비 반영 안돼 '일회성 행사' 우려

제1회 광주국제공연예술축제 개막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아직까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차질이 우려된다. (사)광주국제공연예술제 조직위원회는 당초 국비 5억원, 시비 3억원, 협찬 7억원 등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8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광주문화회관 등지에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광주시의회의 본예산 심의에서 '낭비성 행사'라는 이유로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데 이어 지난 5월 행정자치부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탈락,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있다.

문화계 일부에서는 조직위가 구성 초기부터 지역 문화인들의 전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운영되는 등 문제 제점도 노출, 광주국제영화제의 실패 사례처럼 시·국비 지원이 안될 경우 '일회성 행사'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광주국제공연예술제는 무용, 음악, 연극 등 세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는 행사로 현재까지 외국 유명 음악가 소극장 공연(3회), 유명 발레리나 초청공연, 국내 뮤지컬 팀 초청 공연, 광주시 연극협회 단원들의 합동공연 등이 추진중이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구두 계약 정도만 진행된 상태다.

특히 상금이 걸린 음악·무용 콩쿠르의 경우 1차 예산 날짜를 7월 29일로 못박고 이미 국내·외 각 대학 관련 학과 등에 안내 리플렛을 발송하는 등 일정이 진행중이다.

또 외국 참가자의 경우도 비자 발급을 이유로 이미 계약서가 건네졌고 비행기표 가계약 등이 끝난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등 행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낭패를 보게 될 상황이다.

축제 조직위 측은 협찬금의 확보와 축소된 사업 규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인재양성과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축제를 준비한 만큼 빠른 시일내에 협찬금을 확보, 행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15 광주일보 제17479호 2006년 6월 21일 수요일

정송규씨 작가와의 만남 행사

내일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1층 전시실



광주시립미술관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정송규(사진)씨가 22일 오후 3시 시립미술관 본관 1층 전시실에서 '작가와 만남 행사'를 갖는다.

정씨는 이날 관람객들에게 작품 제작 동기, 작업과정 등에 대해 설명한 뒤 질의 응답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정씨는 유엔에 전남대 교수와 함께 광주시립미술관 올해의 작가로 선정돼 지난 13일부터 시립미술관에서 초대전을 열고 있다. 다음달 16일까지 계속된다.

정씨는 조선대를 졸업한 뒤 11차례 개인전을 가졌으며, 한국여류화가전, 아텍스 도쿄(일본) 등 20여차례 단체전에 참가했다. 제6회 광주비엔날레 이사를 맡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영산강 고대문화권 심포지엄

오늘 전남 직업능력개발센터 시청각실

함평군이 주최하고 목포대학교박물관이 주관하는 '영산강 고대문화권 발전방향 심포지엄'이 21일 오전 11시 전남 직업능력개발센터 시청각실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영산강 유역 고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발굴·복원 정비를 통해 고대문화와 자연환경의 연계방안을 찾기 위해 열린다.

심포지엄에서 조현국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장은 '함평 초포리 청동유물의 성격', 임영진 전남대박물관장은 '함평지역 고대의 특징과 역사적 성격'을 주제 발표한다.

또 최성락 목포대 박물관장은 '함평지역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방안', 이현석 함평문화원장은 '대포포 전라수영 고찰'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내일부터 구상작가 '전우회' 회원전

서양화 구상작가들의 모임인 전우회(全友會·회장 강대성)가 22일부터 28일까지 금남로 지하철역 메트로 갤러리에서 제28회 회원전을 갖는다.

전우회는 지난 1974년 창립전 전목회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서양화 구상계열의 원로와 중진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전곡 명소를 담은 풍경화, 일상생활을 그린 풍경화, 인물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전시된다.

회원으로는 박남재, 조규일 고문을 비롯 고윤석, 국막례, 김길성, 김소남, 김순정, 김민석, 김영순, 김일남, 김재근, 김중근, 김희, 박경자, 박문수, 박지택, 서봉환씨 등이 활동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Cheon Dan Il Gye Gong In Jeung Gae Sa' (천단일계공인중개사)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Gimbo Budeung San Keon Seil' (금보부동산컨설팅) offering services for property transaction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Gimcheon Gong In Jeung Gae Sa' (금천공인중개사) listing propertie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Jeongwon Gong In Jeung Gae Sa' (정원공인중개사) featuring '본업소는 충장로·황금동 금금지하상가' and '임대매매 전문중개업소입니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Gimho Gong In Jeung Gae Sa' (금호공인중개사) listing various propertie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eset Korea Budeung San Keon Seil' (에셋코리아 부동산컨설팅) with a detailed table of property listings.



오는 8월 15일부터 열리는 제1회 광주국제공연예술축제가 시비와 국비 확보에 실패,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초청공연 작품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언버뮤지컬 '점점'.

문화감각을 키우자

(3) 미술작품과 친해지기



미술품을 관람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덕목은 미술에 대해 모르더라도 자신감을 갖고 즐겁게 보는 것이다. 미술은 감상하는 것이지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친구처럼 자주 접하면 미술안목 쑥쑥 자란다

미술관은 누구에게나 '열린공간'이지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 미술품 관람이 어렵고 낯설게만 느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술은 '내공'을 쌓지 않고는 접할 수 없는 '경지'처럼 보인다. 아이들 때문에 미술관을 찾는 때는 또 어떤가. 뭔가 그럴듯한 설명을 해주고 싶지만 밀천이 달린다.

아이와 함께 나들이 하듯

그러나 어렵게만 느낄 일이 아니다. '미술감상'에 정답은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술감상이 '미술 공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자신 있게 보고도 권한다. 음식을 즐기는 것과 같이 젓가락(눈길)은 곳에서 맛(느낌) 좋은 그림을 보고 즐기라는 말이다.

자신이 봐서 좋다는 생각이 드는 그림을 보는 것이 좋은 감상법이고, 미술감상의 시작인 셈이다.

미술감상에 왕도는 없지만 권장되는 감상법은 있다. 무조건 많이 보는 것이다. 미술품을 자주 접하고 보게되면 자연스럽게 미술에 대한 안목이 자란다는 것이다. 막연한 것도 같지만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추천하는 감상법이다.

아무런 지식없이 볼까 찾는 것보다 도록 등을 구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얻은 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볼지, 정하고 방문하는 것도 한 방

법이다. '양 보다는 질을 택하라'는 충고도 있다. 작품이 많지 않을 경우 한 번씩 둘러본 뒤 '느낌이 오는' 작품을 골라 집중적으로 감상하는 것이다.

반 고흐는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서 렘브란트의 '유대인 신부'를 하루 종일 보고도 모자라 밤새 볼 수 있게만 해준다면 자기 수명의 10년을 빼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단 한 작품만으로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감동을 느낄 수 있다는 사례다.

큰 그림은 작당히 떨어져서 보고, 작은 그림은 가까이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소감 이야기 하며 즐겁게

아이들과 함께 미술관을 찾을 경우 소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이 그림의 주제와 내용을 달리 설명하더라도 '홀통한 생각이 구나'하는 칭찬을 잊지 않아야 한다. 미술에 대한 안목을 길러주는 가장 큰 덕목은 미술을 친근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술평론가 이주현씨는 "미술 감상은 미술공부와 달리 무엇보다 자신의 느낌을 중요시하는 주제적인 감상이 되어야 한다"며 "무조건 많이 보고, 음식을 즐기는 것과 같이 편안하게 관심 가는 주제와 소재, 스타일을 선택해 감상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